

광양에 푸른길공원 생긴다

옛 광양역사·폐선 부지 공원 조성 기본설계 착수

국토환경디자인사업 보고회

광양에도 광주의 푸른길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옛 광양역사와 폐선 부지를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광양시는 26일 "27일 오전 시청에서 국토환경디자인사업인 '철길에서 함께 만드는 삶터 디자인 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폐지된 옛 광양역사와 폐선 부지를 다양한 계층 간의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간별 다양한 특성이 있고 모든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하는 다목적 공원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 이어 오후 2시에는 광양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지역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여러 분야의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2012년 국토환경디자인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돼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광양을 원도심에 대한 공공공간·공공건축물 통합 마스터플랜 용역을 완료하고 거점사업으로 '철길에서 함께 만드는 삶터 디자인'을 주제로 옛 역사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조성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올 초 국토부 주관 성과평가에서 2013년 계속 사업비 지원 시군으로 선정돼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조성 기본설계는 폐선부지 환경개선, 유류시설 활용,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한 공동체 공원 조성으로 쇠퇴한 구 역사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올해 말 국토부의 평가를 거쳐 2014년부터 50억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4079@

치어까지... 싹쓸이 어업 "꼼짝마"

해경, 육·해상 단속 강화 수만마리 포획 2명 입건

전남 동부 해안에서 불법 치어잡이가 계속되면서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

여수해경은 26일 "불법으로 치어를 포획한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지난 23일 육·해상 합동 단속에 나서 치어 불법 포획 어민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30분께 여수시 대경도 및 송도 인근 해상에서 놓여 치어를 불법포획한 박모(50)씨와 강모(45)씨 등 2명을 적발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농어치어 2만4000마리 가량을 방

류했다.

박씨는 지난 10일께부터 여수시 화정면 및 고흥군 일대 해상에서 그물을 이용해 농어치어 약 1만8000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강씨는 지난 7월 중순께 여수시 돌산을 인근 해상에 불법 치어잡이 그물 1를 설치, 지금까지 약 6000마리 상당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적발된 어민들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포획 사범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여수시, 결혼이주여성 대상

원어민 보조교사 등 양성

여수시가 '국제화 교육특구' 사업 일환으로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및 국제행사 자원봉사자 등을 양성한다.

이번 양성 교육과정은 문화의 이해를 통한 한국어 능력 배양, 일본어 교육이론 및 교수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우수 교육이수자는 시민외국어교육 원어인 강사, 국제행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취업이 보장된다.

지난 2006년 개설된 결혼이주여성 교육 과정은 그동안 필리핀 출신여성 2회, 중국 출신여성 2회, 일본 출신여성 1회를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고흥색소폰동호회 '행복 공연'

고흥색소폰동호회가 지난 2011년부터 3년째 관내 노인요양시설 등을 찾아 80차례가 넘는 위문공연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다.

지역민 12명으로 구성된 이 동호회는 또 지난달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늦게 박지성운동장에서 1시간씩 공연에 나서는 등 재능을 기부하고 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 "환경의 소중함 느꼈어요"

고흥군, 20여차례 400여명 체험 호평



고흥군이 사회단체, 주부, 학생을 비롯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이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군민들의 환경의식 고취와 재활용폐기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0차례 400여명이 재활용품 선별장 현장체험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51개 단체 1300여명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현장체험에 참여했던 류범현 고흥읍 자치위원장은 "체험을 하기 전에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무관심했지만 선별체험 후 쓰레기 분리배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며 "모든 군민이 꼭 한번 참여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전북

아파트 시공업체 이럴수가... 남원시는 도대체 뭐하나?

준공 요양인데 단지 내 국·사유지 소유권이전 등기 안해

발코니 확장 부분 합판으로 가리고 "준공 후 공사" 배양

한국토지신탁 등이 조성중인 남원시 월락동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고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 단지 내 국유지와 사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없이 사용승낙만 받은 상태에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발코니 확장과 관련하여도 분양자와 마찰이 일고 있다.

남원시가 편법에는 눈감고 지나치게 편의만 제공하고 있다는 불만소리도 나오고 있다.

26일 남원시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 등이 지난해부터 남원시 월락동에 아파트 6개동 432세대 건설에 나서 최근 분양을 끝내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전체 32평

지 중 국가 및 시 소유의 11필지에 대해 사용승낙만 받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국·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도로부지에 조성한 뒤 이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매입비를 줄여 사업비를 최소화하고 토지매매에 따른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소유권을 이전해갈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준공 전에 조치하겠다고

만 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공사 착공 전 문화재청이 문화재 발굴 완료 후 공사에 들어갈 것을 통보했으나 남원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통보 한 달 전부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분양자들에게 준공처리 후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겠다고 모두 33억여원을 추가공사비로 부담시켜 논란이 일었다.

분양을 받은 김모(54)씨는 "업체가 발코니 확장할 부분을 합판으로

가려 놓고 준공 후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명백한 편법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아파트 단지 조성과정에서는 업체 관계자가 부지 내 식재돼 있던 이팝나무 1000여그루를 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베어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달 업체 임원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단신

군산해경, 추석 귀성객 특별수송대책 마련

군산해양경찰서는 26일 "올 추석 연휴에 1만2000여명의 귀성객이 전북지역 섬을 찾을 것으로 보고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산해경은 9월 16~22일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 여객선 8척이 도내 5개 항로를 220차례 운항한다.

해경과 군산해양항만청 등은 또 27일부터 이틀간 관내 여객선과 터미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올 추석 연휴는 5일토 섬을 찾는 귀성객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돼 여객선 증선이나 증회 운항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주-군산=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정읍시, 단풍축제 거리퍼레이드 참가자 모집

정읍시가 2013 내장산 단풍맞이 가을축제 전야제 행사인 거리퍼레이드에 함께 할 참가자를 오는 9월30일까지 모집한다. 시는 오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정읍사문화재, 정읍시민의 날, 평생학습축제, 전국민속사살움대회 등 가을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청조건은 20명 이상 팀으로 축제를 즐기고 참여할 사람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시 산하 기관단체, 기업체, 전북도내 동호회 및 대학교 단체 등이고 직접방문 및 우편(정읍시 충청로 234 정읍시청 4층 관광산업과) , 이메일(jjh8106@korea.kr), 팩스(063-539-6518)로 접수하면 된다. 퍼레이드 연출내용은 주제 제한이 없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순창군, '명랑한 청년 꿈공이 페스티벌' 개최

순창군은 도시 청년 귀농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 순창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명랑한 청년들이 시골에서 대안을 찾는 꿈공이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 참가한 가운데 지역주민과 더불어 흥겨운 행사로 진행돼 침체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사일손뚝기와 재는나눔, 순창알기, 벽화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참가자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행사에 미혼 도시청년 80여명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용전마을 주민들 평창 계방산마을 방문

남원시 정보화마을인 용전·동하·운교마을 담당자와 관계자 10명은 26일 평창 계방산마을을 방문해 우수농산물 정보를 교류하고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했다. 남원 용전마을 등 관계자들은 특히 강원도 참옥수수 재배와 씨감자 종자 보급 방법에 관심을 가졌으며, 남원·평창 정보화마을 관

계자들은 계방산 힐링코스를 체험하며 우의를 다졌다. 이들은 향후 매년 2회 이상 상호 교류를 다짐하기로 했다. 용전정보화마을 황치연 위원장은 "우수 농산물 노하우와 기술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 마을의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고창군 심원면에 국민체육센터 준공

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심원면 연화리에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됐으며, 부지면적 3185㎡,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35㎡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난해 6월 착공했다.

지난 24일 고창군 심원면에 건립된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이강수 군수, 박래환 군의회의장,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국민체육센터는 심원면 연화리에 총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건립됐으며, 부지면적 3185㎡,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35㎡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지난해 6월 착공했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순창군, 내년 도민체전 준비 박차

순창군이 내년 전북도민체전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한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6일 "지난 5월8일 전라북도 체육회로부터 2014년 전북도민체전 개최지로 확정된 이후 이달 9일자로 체육공원사업소에 도민체전 T/F팀을 조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

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9월로 예정돼 있는 전북도민체전은 33개 경기종목으로 순창군 일원 공설운동장 등 28개소에서 치러진다. 군은 순창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인 만큼 단계별,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해 검토하고 알찬 대회운영을 위해 군의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갈 방침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조남철 9단 고향 부산서 여류기성전 열린다

줄포해변서 반상 승부

바둑의 메카 부산에서 여류기성전이 펼쳐진다. 26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국기원에서는 제6기 부산여류기성전 본선 참가자 선별을 위한 1차 예선전을 치렀다.

이번 여류기성전에는 출중한 실력을 갖춘 기사 51명이 본선 티

켓을 두고 자웅을 겨뤘다. 이를 통해 1차 예선을 통과한 8명의 여류기사들은 오는 10월29일 부산 줄포해의길공원에서 2차 예선전을 치르게 된다. 이어 30일에는 준결승 및 결승전을 통해 반상위의 최고의 승자를 가린다.

부산은 한국 현대바둑의 개척자인 고 조남철 9단의 고향이다. /부산=장재용기자 jjy0681@